

우리나라의 여름과 영국의 섬머가 다른 까닭

우리나라에서 여름이라고 하면 찌는 듯한 한여름을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는 섬머(summer)라고 하면 하지를 의미한다. 미드섬머라고 불리는 하지일 때 우리나라는 장마가 한창이기 때문에 가장 싫은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준브라이드(june bride)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계절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여름과 영국의 섬머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

파리의 레테, 영국의 섬머인 여름은 온도 및 습도에 낮기 때문에 재킷이라든가 가디건을 입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몸에 걸친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싶은 계절이기도 한다. 여름에는 옷을 입고 있으면 땀을 흘리게 되고, 흘린 땀은 옷에 스며들게 된다. 따라서 여름에는 의류를 세탁하지 않고 계속하여 입을 수는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여름장마는 많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외출시 바짓가랑이나 스커트 밑단 등이 빗물에 의해 더럽혀진다. 이러한 땀과 오염 때문에 여름에는 잦은 세탁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름용 옷감은 땀을 흡수하여 곧바로 방산하고, 여러 번의 세탁에도 튼튼하며, 공기가 잘 통하고 아울러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고, 외관상으로 청량감이 있는 소재가 선호되고 있다.